



산업통상자원부

보도참고자료

희망의 새시대

<http://www.motie.go.kr>

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배포일시	2016. 5. 8 (일)	담당부서	유통물류과
담당과장	전응길 과장 (044-203-4380)	담당자	장진호 주무관 (044-203-4386)

황금연휴기간, 유통업체 매출 큰 폭 상승

- ▲ 산업부 조사결과, 백화점·대형마트 매출 지난주·작년 대비 증가
- ▲ 5.6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연휴기간 소비진작에 크게 기여

- 산업통상자원부가 연휴기간 중 5.5(목)~5.7(토) 사흘간 백화점·대형마트·가전유통전문점의 매출 동향을 조사한 결과, 연휴기간중 유통업체 매출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.

* 조사대상 : 백화점(롯데, 현대, 신세계), 대형마트(이마트, 홈플러스, 롯데마트), 가전유통전문점(하이마트, 전자랜드)

- 유통업체들이 산업부에 제출한 매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, 연휴기간 동안(5.5(목)~5.7(토)) 매출이 지난주('16.4.28(목)~4.30(토)) 대비 36%, 전년('15.5.5(화)~5.7(목)) 대비 48% 증가했다.

< 임시공휴일에 따른 유통업체 매출 실적(5.5~7일) >

구분	매출액	①전주대비	②전년대비
백화점	3,735억 원	37% ↑	62% ↑
대형마트	3,431억 원	35% ↑	39% ↑
가전전문점	492억 원	41% ↑	25% ↑
합계	7,658억 원	36% ↑	48% ↑

- (백화점) 의류, 잡화 등 어린이날·어버이날 선물 수요로 사흘간 3,735억 원 매출 실적→ 전주 및 전년 대비 각각 37%, 62% 매출 증가했다.

- (대형마트) 선물 수요와 함께 나들이객 증가로 사흘간 3,431억 원 매출 실적 → 전주 및 전년대비 각각 35%, 39% 매출 증가했다.
 - (가전전문점) 휴일에 따른 방문객 증가로 사흘간 492억원 매출 실적 → 전주 및 전년대비 각각 41%, 25% 매출 증가
- 특히, 금번 연휴기간중 정부가 5.6(금)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것이 소비 진작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.
- 이번 임시공휴일 5.6(금) 당일 매출 실적은 백화점 1,231억원, 대형마트 1,010억원, 가전전문점 142억원으로 전주 4.29(금)에 비해 각각 34%, 41%, 39% 증가, 그리고 전년 5.6(수) 대비 각각 125%, 66%, 45% 증가했다.
- 한편, 산업부는 이번 임시공휴일과 지난해 광복 70주년 기념으로 지정한 임시공휴일('15.8.14(금))의 유통업계 매출을 비교해 본 결과, 금년 임시공휴일의 내수 진작효과가 더 컸던 것으로 파악됐다.
- ※ 지난해와 올해 지정한 임시공휴일 당일 매출 비교
- '15.8.14(금): 백화점 822억 원, 대형마트 956억 원
 - '16.5.6(금): 백화점 1,231억 원, 대형마트 1,010억 원
- 이는 올해 임시 공휴일의 경우 ▲유통업계가 어린이날·어버이날과 연계해 각종 할인 행사와 행사를 풍성하게 준비한 점 ▲중국·일본 등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한 점이 매출증가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.

  <p>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</p>	<p>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장진호 주무관(044-203-438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</p>
--	---